

편의 봉사망과 북한의 상업

주강현 / 민속학자, 경희대 강사

북한 사회에서 상업의 본질은 공급 사업을 말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업의 본질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입니다”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계획경제답게 공급이 착착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있을 턱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물건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대중소비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오히려 대중소비품의 공급을 위축하여 화폐 구매력은 있어도 물건이 없어 못 사는 공급 부족 현상, 즉 생활필수품의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점에서 북한의 편의 봉사망은 사회주의 상업이 가질 수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정되며, 공급적인 상업 체계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유통망 구실을 대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편의 봉사 사업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된다. 북한의 상업은 중앙 상업지도기관과 지방 행정기관으로 나뉘며

위생 편의, 가공 편의, 수리 편의, 이용 편의 같은 편의 봉사망을 도시와 노동자구, 농촌에 설치하고 있다.

즉, 다양한 곳에서 원하는 물건을 제때에 구매할 수 있으려면 상점이 곳곳에 있어야 한다. 물건을 사는 행위 말고도 생활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보다 좋은 곳에서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해야 하므로 이같은 시설들도 요구된다. TV가 고장나서 당장 고쳐야 하는데 수리점이 없거나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고 수리 기간에 많은 시일이 요구되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놓치고 만다면 생활상의 불편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기차를 타고가다 역에서 청량 음료도 사먹고 싶어지는 것도 누구나 갖는 욕구이다. 또한 요즈음 북한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물건 중의 하나인 전자제품을 공급해 줄 전자산업이 북한에서는 유달리 낙후된 생산 부분의 하나다. 가전제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칼라 텔레비전 하나 마음대로 공급받을 수 없다.

바로 돈만 갖고서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소



소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경공업 혁명이 전개되고 있으며 편의 봉사망이 확충되는 것이다. 편의 봉사망을 확충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은 인민 생활의 편리함을 보장하려는 나름의 노력으로 보인다. 경공업 혁명, 사회주의 상업과 봉사 혁명은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편의 봉사망 자체가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평양 같은 대도시는 그런대로 봉사망이 일찌부터 확산되어 있으나 중소도시 및 농촌으로 갈수록 사정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편의 봉사망의 확충은 '인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의 얻어진 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가 바로 공급 사업이다. 따라서 나날이 높아져 가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과 질의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편의 봉사망에서 취급하는 주요 품목이 경공업 제품인 바, 현재 북한에서 경공업 제일주의를 부르짖을 정도로 취약한 산업 부분인 탓이다.

셋째, 상업의 본질이 공급인 까닭으로 관료주의적 발상이 끼어들 소지가 있다. 가령, 신발

을 1만 켤레 공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의 문수가 맞는 신발을 공급했는가 문제의 핵심이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아무 짝에 소용이 없는 탓이다. 또한 필요할 때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인종의 '공급선의 동맥 경화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춘실운동 같이 주문제를 실시하여 직접 찾아다니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오늘날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편의 생활 문제 해결의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현재 북한의 편의 봉사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사회주의 공급 체계가 주민들과 연결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 편의 봉사 업종: 서비스 기능에 따라 위생 편의, 이용 편의, 가공 편의, 수리수선 편의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 ① 위생 편의: 근로자를 개인 위생을 위한 것으로 목욕, 이발, 미용, 빨래 등이다.
- ② 이용 편의: 일정한 서비스 시설이 갖춰진 장소, 불품 대여 및 운송 등의 서비스업으로 숙박 편의(여관, 독신자 합숙), 대여 편의(옷, 낚시 도구, 운동 도구 등 대여), 운송 편의(삼륜차, 자동차 등)가 이에 포함된다.
- ③ 가공 편의: 근로자의 주문에 따라 생활 수단을 가공해 주는 서비스업이다. 옥수수 가공(양복, 뜨개 제품, 모자 등 가공), 공예품 가공

및 미술 제작(사진, 염색, 날염, 도장, 꽃만들기, 수예, 제본 등), 식료품샐 가공(가루북기, 물국수, 마른국수, 빵, 떡 등 가공)으로 나뉜다.

④ 수리수선 편의: 고장나거나 못쓰게 된 불건을 수리해 주는 서비스로 가정용품 수리, 문화용품 수리, 옷 수리, 신발 수리, 고무제품 수리 등으로 분류된다.

* 편의 봉사망: 서비스업의 소유 형태별로 국영 편의 봉사망, 협동단체 편의 봉사망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합 편의 봉사망, 전문 편의 봉사망, 편의 봉사망 주문소 및 편의 공장 등 전문화에 따른 구분이다.

① 종합 편의 봉사망: 서비스 성격이 같거나 원자재 및 기계 설비 이용년에서 연관성이 크고 이용면에서 서로 연관된 업종들을 종합한 시설이다. 여기에는 수요자들의 동시 이용 가능 업종들(이발, 복욕, 빨래, 염색 등), 원자재, 설비, 노동력 등의 합리식 이용이 가능한 업종들(유사한 수리 수선업, 위생 편의업), 계절적 수요 변동을 고려한 업종 상호간 작업 조절 가능 업종들(옷 가공, 옷 수리업 등)이 포함된다.

② 전문 편의 봉사망: 단일 서비스업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시설로 서비스망의 특성, 규모상 단일 서비스업을 전문으로 취급하도록

하는게 효과적인 업종들(합숙, 양복점), 다른 서비스업과는 통합할 수 없는 업종들(구두 수리, 자전거 수리, 사진 작업, 가구 수리, 철제일용품 수리, 땀 수리, 미술, 수예 및 스웨터 짜기 등), 일상 수요가 많으면서도 연중 균등하게 필요한 단일 업종들, 그 밖에 전문 업종들(텔레비전 수리, 사진기 수리, 시계 수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③ 편의 봉사망 주문소: 주민 편의를 위해 일정 지역에 배치하는 서비스 거점으로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아 약속 시간에 찾아가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주문소는 대개 주민 1천명 당 1개소씩 배치하게 돼 있고 주로 아파트 아래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30여 평방미터 규모로 알려진다.

④ 편의공장: 일정 지역에 수리수선, 옷 가공 같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서비스망을 공장처럼 만들고 주문소에서 주문 받은 내용에 맞게 수리, 가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종합망이다. 도시 기준으로 할 때 한 구역에 1개, 또는 2~3개 구역에 1개씩 배치하게 돼 있고 규모는 수리, 가공 수요와 제품의 품종 수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편의 공장은 각종 TV 수리와 라디오, 오디오, 각종 전자일용품 및 전기기구들의 수리를 전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원**